

원 본	세이쿄 신문	발행일	2017-06-20			면(面)	5	
제 목	브라보 나의 인생	내 용	이케다 선생님의 추억,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O		

이케다 선생님의 추억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효고현 토요오카시] 이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본 것이 얼마만인가!
세키오카카즈에상(100세)는 이즈시 상락지부, 지구부부인부장입니다.
말투도 또박또박 사제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흥분됩니다.
잔주름 많은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몇번이고 닦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라고 말하는 세키오카상.
순수하고 꾸밈없는 말속에 세키오카상의 100년이 담겨있습니다.

● 세키오카상 인터뷰

나이는 100살이 되었습니다. 딱 100살이요. 귀도 잘 안들리고 말도 어눌하지요. 그래도 제목은, 제목 만큼은 지금도 진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이케다 선생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케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만, 제목을 하면서,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과 추억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여기에 계십니다. 기원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목 올리고 있으면 이케다 선생님과 만난일이, 한번에 떠오릅니다. 1968년, 토요오카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손주를 등에 업고,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선생님이 눈앞에 계셨지만 ‘선생님!’하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부르면 안된다고 해서요. 지금에 돌이켜 보면 선생님과 함께한 순간이 여기에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아, 잊을 수 없습니다.

제목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몸안에 새겨지는 것이기에 절대 제목을 불러야 합니다.
창제가 일입니다. 어본존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목 올리면 이케다 선생님께서 ‘더욱 힘내요, 더욱 힘내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기원합니다.

신심을 시작한 건 1960년 가을입니다. 그 때는 모두가 가난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 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배추 콩지를 건져서 먹은일도 있어요. 쌀이 없어서 시골 할아버지네로 쌀을 얻으러 갔는데 ‘너희에게 먹일 쌀은 없단다’라고 거절 당한 일도 있었지요.

신심한다는 이유로 근처에서 바보취급을 당했어요. 바보취급을 당해도 ‘마음대로 지껄여라. 지금이야 좋겠지’하면서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돈도 없어도 제목하고 절복했습니다. 옷을 전당포에 잡혀 가면서 그 돈으로 도쿄까지 갔습시다.

세이코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세이코 신문을 가지러 배부하는 곳까지 갔습시다. 연습도 겸하여 자전거를 탔습시다. 강을 건너려 할 때 경찰관이 ‘위험해요’하고 말렸습니다.

자전거는 경사길을 오르고 내리는 데 아주 좋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은 토요일까지 14킬로미터나 되는 기을 걸어서 갔습시다.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빠지지 않고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신문배달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편지라 생각하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때가 그림네요.

어본존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모두 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기쁩니다. 눈물이 납니다. 신심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겠지요. 괴로워도 제목을 한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제목을 하렴, 제목을 해,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목을 올리면 어본존께서 모든걸 알려주십니다. ‘올바른 신심을 하거라, 인간혁명과 숙명전환을 위해서는 제목이다, 제목이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덕분에 자식들도 숙명전환하고 있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으니까요. 물건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가져다 주니까요. 감기도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가끔 다리가 아프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기(가슴)에서 지켜보고 계시지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목, 제목, 제목입니다’라고 말이지요.

어본존, 선생님, 동지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아, 황송하네요.

‘비에다 지지않고 바람에도 지지않고’ (지금까지) 싸워 왔습시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하고 또 하면서 이제 (100살이 되어)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병도 걸리지 않고 100살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第30回 100年分の美しき涙

貴子との心算も、貴子とは別な人だった。金持ちのへんぴな、器用な娘。昔も、東京の銀行で働きながら、持てる金を費はれて、行方不明がね。

新聞記者をさせて、うたやなんや書かせる。暗いところへ、聖歌隊を導いてくはる所まで、取に行きまわす。自、自転車に乗って、標高(一)の川にまわって、おぼろに、とどまされて、はいての車輪は、坂をうたなす。うたの歌は、あそびで。

雪のうしろ日は、14の道を歩くと、橋間を行たがね。雪が降

例えば、昼食を取りながら、「ようちゃん。私、勤行したかいな」「朝の4時にしてたがな」「ほうか、してたか」とか。財布の中身が気に入らなければ、「減つとる。ようちゃん、お金とったか」「孫にあげてたがな」「ほうか、あげてたか」とか。考校さんいわく、「年相応に、物忘れが増えたでよ」。

一方、歯を食いしばった遠き記憶は色濃く残る。冷

スートに乗り出される。昭和43年（1968年）の豊岡です。ええ、お会いしましたかな。小さい孫を背負って、先生への会いのために、走って、走って、

先生が、目の前にいてはったのに、「先生」と、う一言わんかった。言いさしても、大勢おるから、言つたらあかん。いまだに先生と

の写真(當時の光景)が、ここ胸に入ってくる。ああ、忘れられませんでした。

題目あげなアカン。自分の肝に銘じとる。絶対「置」。題目です。題目が仕事です。御師様様に感謝して、題目あげてると、池田先生が「きつこ頭張れ、もつこ頭張れ。絶対に幸せになれる」と言ってくれば

**フ
ラ
ボ
ー
る**

年じつで、もう一〇〇歳になりまして。ちやうど一〇〇歳。耳は聞こえんじ、物は言ひにたぐひ。ほゞで、も、題目はなほ、題目はなほ、ごまか負へず、真剣にやります。

とてなごがあつても、池田先生に、ご報告、またやうな題目を……

先生で……先生に。本当に苦勞してないや。題目あひながら、負へず、ごまか、ごまかしてあります。

池田先生ので、これ、ほんとにも忘れられまう。

【兵庫県豊岡市】こんなに美しい涙を見たのは、いつ以来だろう。関岡加津枝さん(80)＝出石常楽支部、地区副婦人部長＝は、言葉をつずつ区切りながら、師弟の思いを語ってくれた。「池田先生」と口にするだけで、込み上げる。しわただらけの手で、こぼれる涙を何度も拭った。「ただ、池田先生が大好きで……」。純粋で、飾り気のない言葉の奥に、関岡さんの100年がある。



「池田先生のこと
これっぽちも
忘れられません」

うが雨が降ろうが、新聞をぬらさんように配達してきただけ。新聞配達をやめたといふ思ひで、ねんね。先生のお手紙だと思ひ書では、歩きまわした。思ひ出します。懐かしいです。

